

비즈 프리즘 | 장수제품들, 편의점·대형마트 여름 효자로 등극

“그 때 그 맛이 최고”...추억의 음료·빙과 ‘역주행’

‘서주 아이스크림 홈’ 새롭게 등장 ‘비락식혜’, 아이스크림으로 출시 CU 상반기 판매 ‘갈아만든 배’ 1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서주아이스 홈 아이스크림’ 상품을 둘러보는 고객(왼쪽)과 CU ‘따봉 제주감귤’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 유통업체가 추억의 음료를 활용한 복고 마케팅에 한창이다. 사진제공 | 롯데마트·CU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여름철을 맞아 음료와 빙과에서 과거 인기 높았던 추억의 제품이나 장수 상품들이 새삼 인기를 얻고 있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친숙한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 제품 특성은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변형한 PB(자체브랜드) 제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CU ‘따봉 제주감귤’. 1989년 롯데칠성음료에서 출시했던 당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용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롯데마트는 45년 역사를 자랑하는 빙과 ‘서주아이스주’를 홈 아이스크림으로 내놓았다.

우유 본연의 품미로 인기가 높았던 특성을 살려 ‘홈 밀크’, 딸기와 치즈를 가미한 ‘홈 스트로베리앤치즈’ 등 2종으로 구성했다. 추억의 음료를 아이스크림 PB제품으로 변형시킨 제품도 등장했다. CU는 팔도와 손잡고 ‘비락식혜바’를 내놓았다.

음료 ‘비락식혜’를 과거 시원하게 즐기려고 얼려서 먹는 고객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나온 아이디어 상품이다. 세븐일레븐 역시 롯데칠성음료 ‘썹썹오렌지’를 활용한 ‘썹썹바’를 출시했다. 이처럼 유통업체가 새로운 브랜드 개발보다 20~30년 전 출시했던 제품을 마

케팅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은 판매순위에서 이들 상품들이 다시 인기를 얻는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CU의 상반기 과음음료 판매량을 조사에서 1위와 2위는 해태음료 ‘갈아만든 배’와 ‘포도봉봉’이 차지했다. ‘갈아만든 배’는 출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 유튜브 등에서 ‘속취해소에 최고인 한국 음료’로 소개되면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 ‘포도봉봉’ 역시 출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추억의 맛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올해 초 재판매에 들어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고가 촌스러움에서 벗어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80~90년대 감성을 즐기는 2030 젊은층과 어릴적 향수를 가진 4050 고객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한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6월 25일~29일

코스피지수	2326.13	↓	-21.57
코스닥지수	818.22	↓	-17.78
日 닛케이 지수	2만2304.51	↓	-33.64
中 상하이 종합	2847.42	↓	-11.9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2	↓	-0.02
환율 (원·달러)	1114.50	↓	-0.7
국내금값 (원/그램)	4만4821.74	↓	-816.03

지수는 29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NS홈쇼핑, 7월 서머타임 이벤트



NS홈쇼핑이 7월 한달간 ‘서머타임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평일에는 오전 9시에 서 10시 사이에 방송하는 TV홈쇼핑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10% 적립금을 준다. 1차(2~13일), 2차(16~31일)로 나눠 각 차수별 누적 적립금을 지급한다. 적립금은 차수 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고 1차 적립금은 8월1일 적립하며 8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차 적립금은 8월20일 적립해 9월18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정정욱 기자

대기업 공익법인은 ‘꼼수 법인’?

총수일가 대표 맡고 계열사 주식 보유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 ‘편법 의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사익 편취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7개(47.9%) 계열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

석이 가능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전체의 83.6%인 138개에 달했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98개(59.4%)였으며,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68개(41.2%)로 파악됐다. 또한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

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은 100% 찬성으로 행사했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승계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신동빈, 경영권 ‘옥중 방어’ 성공

日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부결

현재 구속수감중인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다섯 번째 경영권 대결에서 승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6월29일 일본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우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안과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을 모두 부결했다. 두 안건 모두 경영권 탈환을 노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한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수감이 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본 측의 지지를 확인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신 회장 체제가 완전히 굳어졌다는 평가다. 일본은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임

·해임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 회장의 이사직을 유지해 주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경영권 방어로 한·일 롯데 사업이 안정화되고 롯데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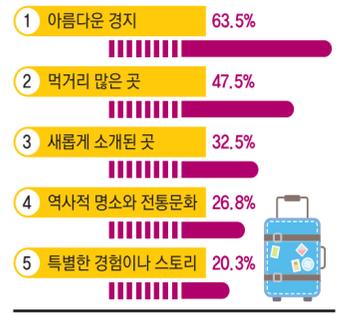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한국인 2명중 1명, 방승 등장 여행지 실재로 방문”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20대에서 50대까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4%가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여행지에 관심이 생긴다고 답했다. 특히 프로그램 시청이 실제 여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53.5%에 달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다. TV 속 여행지에 매력을 느낀 이유로는 아름다운 경치, 먹거리가 많은 곳, 새로운 곳, 역사적인 명소와 전통적인 분위기, 여행지의 특별한 경험이나 스토리 순이었다.

● TV 속 여행지가 매력적인 이유(중복답변)



교육·퍼즐

예두릴

막 내린 9급 공무원 시험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2018년도 9급 공무원 시험 종료...2019년 전망과 대책은?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에 이어 지난 23일 치러진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8년 9급 공무원 시험도 막을 내렸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 입기 내 17만 4천 명의 추가 채용 계획을 밝히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3만여 명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이어 공무원 육아휴직 증가와 의경 대체인력 충원 등 공무원 채용에 대한 기대 속에 이러한 열기는 2019년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서울·광주·대구·부산 등의 전국에서 ‘9급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를 실시한 예두릴은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9급 공무원 선택과목에 전문과목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 빠르게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 선택과목과 직렬선택이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직렬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



혔다. 우선 직렬은 자신의 전공이나 잘하는 분야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체력이 자신 있다면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및 전공

자는 사회복지직이나 보호직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선택과목도 영어나 국어가 취약하다 판단되면 영어시험이 없는 운전직이나 계리직을 준비하거나 국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경찰직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합교육기업 예두릴은 9급 공무원 온라인 커리큘럼은 물론 서울 대방, 노원, 부산 서면, 인천 부평 지역에 9급 공무원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 스도쿠문제

		8	7	1				
			6	2				
7	6		9	3		2		
2			3			5		
3	7	9		6	2		8	
	8		4			1		
5		9	1		4		6	
			4	5				
		2	6	5				

		5					7	
4			3	5	1			8
		6		4	3			
4			3			2		
9	7	6		8	1	4		
	3		7			8		
		4		1	8			
1			2	6	9			4
		2					1	

■ 스도쿠정답

1	8	5	6	9	7	2	4	3
7	6	8	5	2	4	3	9	1
9	2	4	8	1	3	6	7	5
8	1	9	7	4	2	9	8	6
8	4	2	9	5	6	7	1	3
6	5	7	1	8	4	2	9	1
2	8	6	4	7	1	8	5	9
5	9	2	8	2	2	2	4	8
4	7	1	6	8	2	2	7	4
1	6	1	3	7	8	5	6	2